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

프린스턴대학교의 문학 교수였던 헨리 반 다이크는 동방박사는 원래 네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문득 광명한 한 별이 나타남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함을 깨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러 가기로 결정하고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한 장소에서 만나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타반이 왕께 드릴 예물인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준비해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을 건널 무렵 쓰러져 있는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도를 만난 듯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갈 길이 바빴지만 그에게 약을 발라주고 갖고 있던 빵과 약을 모두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 세 박사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온갖 고생하면서 예루살렘에 찾아 갔지만, 친구들은 이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천사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보니 아기 예수님도 헤롯의 공격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어디 계신가를 찾고 있을 때,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여왔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젖먹이를 가슴에 안고 있었고 군인의 칼이 그 어린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두 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는 헤롯왕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아이들을 마구 죽이고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황급히 청옥을 그 군인에게 내어주면서 그 아이를 살려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어머니를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 애굽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이곳 저곳을 찾아 헤매던 알타반은 빈민촌, 노예시장, 사막등을 두루 다니다가 여러 명의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있던 루비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나라로 돌아갔음을 알게 된 알타반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이미 3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 남은 진주로 왕을 속량하리라 생각을 하고 달려가는데, 그때 그의 눈에 빚 때문에 팔려 가는 한 불쌍한 소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팔려 가는 애절한 그 소녀의 모습에 그는 결국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진주를 그 주인에게 줘서 그 소녀를 속량하고 구출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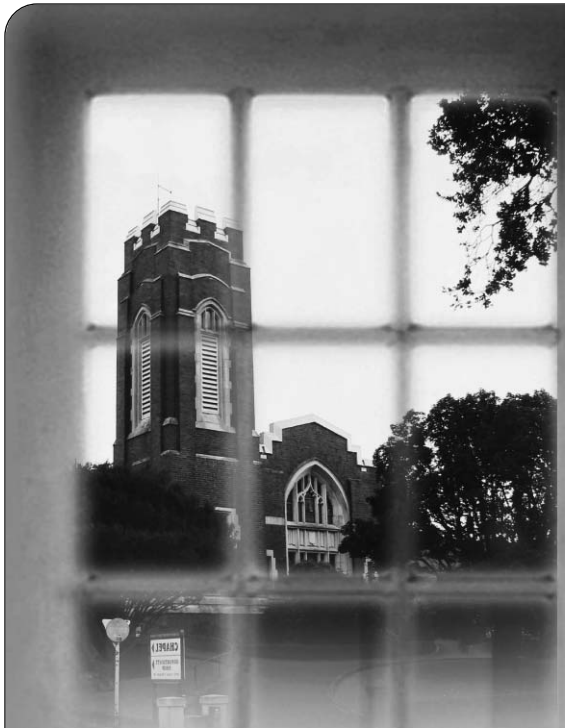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알타반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마음의 평화가 깊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고, 알타반은 그 음성에 화답하듯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굶주린 당신에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목마른 당신에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낯선 당신을 보고 안으로 맞아 들였습니까? 병들어 누워 있는 당신, 감옥에 갇힌 당신에게 언제 찾아 갔습니까? 33년 동안 저는 당신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얼굴을 본 적도 없으며, 섬겨 드린 적도 없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알타반이 말을 멈추자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 알타반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는 그가 그렇게도 만나 뵙기를 소원했던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 왔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먼 길을 찾아 헤매였으나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어느 순간이나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해 수행하였습니다.

부상당한 자에게,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할뻔했던 어린 아이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보배로 찾았으며, 가난 속에서 노예로 몸을 팔려 가는 소녀를 구하기위해 주님께 들릴 마지막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이웃들에게 내어줌으로써 마침내 왕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성탄에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기 원하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할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할가요? 무엇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성탄을 맞는 모습이겠습니까?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젼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 시키는 교회

2010 교회표어: (사도행전 4:11-12)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찾아오시는 길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0년 12월 24일

성탄축하예배

주보 12권 성탄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68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성탄축하예배

저녁 7시 30분		인도:이태한목사
찬양		현종욱 및 청년부
예배의 부름	이사야 9:6	인도자
*찬송	115장	다함께
*성시교독	시96:1-3, 11-13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109장(1,2절)	다함께
대표기도		이광희장로
성경봉독	누가복음 2:1-14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큰 기쁨의 선물	이태한목사
찬송	109장(3,4절)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시편96:1-3,11-13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 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 찌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갈보리 소식

① **성탄**: 구주탄생을 온 성도들과 함께 축하 합니다. 온 세상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 합니다.

② **송년주일**: 26일 주일은 송년주일 입니다.

③ **선물**: 성탄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④ **수요예배**:12월 29일과 1월 5일 수요예배는 없습니다.

⑤ **송구 영신예배**: 오는 12월 31일(금) 오후 11시 30분에 있습니다(헌금 봉헌과 성찬식). 예배 후 "올해 나에게주시는 말씀" 과 달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Celebrate the birth of Jesus Christ
아기예수 나심을 축하합니다

성탄축하잔치

Love Together, Happy Christmas

사회: 진혜령전도사, 이태현형제

1. 말씀 암송 및 찬양	싹트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유치부
2. 찬양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4여선교회
3. 뮤지컬	The Nativity Story	아동부

내용: "어디에 가야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선물을 들고 헤롯궁으로 갔어요.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4. 찬양	천사 찬송하기를	교역자가족
5. 찬양	고요한 밤, 울면안돼	5구역
6. 찬양	When we all get together with the Lord!, 그 어린 주 예수	11구역
7. 연극	제목: 빈방 있습니까?	중고등부

내용: "빈방 있습니까" 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맞게 각색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내어 줄 빈방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이 연극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8.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의 이름 높이며	중고등부전체
9. 하프 2중주, 찬양	크리스마스 캐롤, 이 기쁜 소식을	9구역
10. 찬양	예수 주 승리하심 외 1곡	청년부
11. 찬양	우리를 위해 나셨다 외 5곡	찬양대 특별찬양
12. 워십 댄스	성령이 불타는 교회, 나는 주만 높이리 찬송	중고등부
13. 찬양 및 사탕 나눔	참 반가운 신도여	4남선교회
축도		이태한목사
다과 및 크리스마스 인사		다같이

성탄 편지 (이해인수녀)

친구여, 알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제가 드릴 성탄 선물은
오래 전부터
가슴에 별이 되어 박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꽃피고 열매 맺은
우정의 기쁨과 평화인 것을.

슬픈 이를 위로하고
미운 이를 용서하며
우리 모두 누군가의 집이 되어
등불을 밝히고 싶은 성탄절
잊었던 이름들을 기억하고
먼데 있는 이들을
가까이 불러들이며 문을 엽니다.

죄가 많아 숨고 싶은
우리의 가난한 부끄러움도
기도로 봉헌하며
하얀 성탄을 맞이해야겠지요?
자연의 파괴로 앓고 있는 지구와
구원을 갈망하는 인류에게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다시 그대에게 드립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주님의 뜻을
우리도 성모님처럼
겸손히 받아 안기로 해요.
그 동안 못다 부른 감사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로 해요.

친구여, 알고 계시지요?
아기예수의 탄생과 함께
갓 태어난 기쁨과 희망이
제가 그대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새해 선물인 것을….